

해상·보험팀 강화하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현덕규 변호사 합류...이춘원 변호사와 투톱 이뤄

“규모, 전문성 우리가 최적...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것”
세계경기 악화되며 용선분쟁 봇물...눈코 뜰새없이 바빠



지평지성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남대문외의 대한상의 빌딩. 이 건물의 11층을 쓰고 있는 지평지성은 최근 7층 일부를 추가로 확보했다. 7월께 역삼동에 있는 강남사무소 멤버들이 7층으로 옮긴다.

얼마 전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뉴스레터에 기자의 눈길을 끄는 소식이 하나 실렸다. 해상 전문으로 유명한 현덕규 변호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떠나 지평지성에서 근무하기로 했다는 영입인사였다.

로펌업계에선 큰 뉴스

전문성과 함께 적지 않은 단골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의 법률회사 이전은 로펌업계에선 큰 뉴스로 통한다.

클라이언트가 그 변호사를 따라 자문을 받던 법률회사를 바꿀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해당 분야의 업계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 변호사가 법률회사를 옮겼다는 소문이 나자 기자에게 어디로 옮겼냐고 물어 오는 변호사들도 없지 않았다.

현 변호사는 특히 선사(船社)들 사이에 용선 관련 분쟁 등이 앞다퉈 터지고 있는 와중에 소속 법률회사를 옮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해운업계에선 지난 해 가을 세계경제 위기가 닥치며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 용선계약을 해제하는 등 관련 분쟁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 “지평지성이 해상·보험팀을 강화하고 있어 동참하게 됐다”며, “더욱 높은 전문성으로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의 합류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지평지성의 해상·보험팀이 선사 등 관련 업계로부터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취재결과 현 변호사의 합류도 해상·보험팀을 업계 최고로 육성하겠다는 지평지성의 큰 그림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두 8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지평지성의 해상·보험팀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현덕규, 이춘원 두 변호사가 일종의 투톱 체제로 이끌고 있다.

40대의 대표적인 해상 변호사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로, 1993년 연수원을 마친 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함께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인연도 있다. 로펌업계에선 40대의 대표적인 해상 전문 변호사로 손꼽히고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 많지는 않지만, 오래 전부터 해상 전문 변호사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상 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 등에 대한 전문성도 갖춰야 하지만, 선주상호보험조합 즉, P&I 클럽 등 관련업계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해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P&I클럽에서 선사에 변호사를 추천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현, 이 두 변호사는 또 해상법 연구로 유명한 영국의 사우스햄튼(Southampton)대에서 법학석사(LL.M.)를 한 영국통들이다. 호흡이 척척 맞는다고 지평지성의 여러 사람이 얘기했다.

이 변호사가 지평지성에 합류한 때는 지평지성이 합병작업을 완료해 통합 법인이 탄생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그는 지평지성에 합류하기까지 법무법인 세경에서 해상 전문 변

“해상분야 강한 김&장, 광장 출신 3명 지평지성서 해상·보험 분야 다시 일귀”

호사로 활동했다.

이번에 현 변호사가 합류하며, 지평지성에서 다시 한술밥을 먹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지평지성의 공동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강성 변호사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해상사건을 많이 다뤄 본 경험이 있어 김&장, 광장에서 활약하던 중견변호사

지평지성 합병 발표 1년...시너지 본격 가시화 문 두드리는 새 식구들...중견변호사 합류 이어져 내부 다지고 전문성 강화...“수확할 날만 기다려”



약 1년 전인 2008년 5월22일. 당시 법무법인 지평과 법무법인 지성이 서울 강남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합병조인식을 갖고, 대내외에 합병 사실을 공표했다. 합병결과 120명이 넘는 변호사가 포진하게 된

지평지성은 업계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중견 로펌의 합병 행진이 이어졌고, 대형 로펌들도 규모의 순위변동 등 업계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숨에 규모 7위의 대형 로펌으로 위상을 높인 지평지성의 합병은 성공적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합 법인을 이탈하는 변호사도 없지 않았지만, 지평지성 사람들은 시너지가 적지 않다며 매우 고무적인 모습이다. 한 시니어 변호사는 “어서 경기가 되살아나 수확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성 대표 역할 돋보여

지평지성의 시너지와 비전에 공감한 새 식구들도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해상·보험팀을 구성하고 있는 이춘원, 현덕규 변호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두 사람을 포함해 중견변호사들의 지평지성 합류엔 특히

지성 시절부터 ‘사람 끌어들이는 귀재’로 유명한 강성 대표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이춘원, 현덕규 변호사 외에도 지난해 가을부터 지적재산권 전문의 김범희 변호사, 지평지성의 하노이 지사장을 맡고 있는 김주현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으로 형사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금태섭 변호사가 순서대로 지평지성의 새 식구가 됐다.

올 들어서도 지평지성의 인기가 이어져 동남아 투자 전문인 유정훈 변호사가 3월2일자로 합류했다. 그는 현재 캄보디아에 상주하고 있다.

또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과 남아공 대사를 거쳐 코트라 사외이사를 역임한 김근섭 고문도 비슷한 시기에 지평지성의 상임고문단에 가세했다. 최윤희 미국변호사는 지난해 7월, 홍진경 미국변호사는 올 2월 합류했다.

말하자면 지평지성이 그동안 업무분야를 늘리고, 분야별로 전문변호사를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내부 기반을 다져왔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나아가 합병 발표 1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축적된 합병 시너지의 본격적인 가시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강성 대표와 함께 경영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양영태 대표는 “끊임없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체제로 일신하고 있다”며, “이미 그 효과가 일선 업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른바 분위기가 느껴지는 지평지성의 로비. 지평지성을 찾은 회사 관계자들이 소파에 앉아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세 명이 지평지성에서 다시 뭉쳐 해상·보험 분야를 일궈가고 있는 셈이다. 김&장과 광장은 전통적으로 해상분야가 강한 로펌으로 꼽힌다.

현, 이 두 변호사가 이끄는 지평지성의 해상·보험팀은 우선 선사와 P&I클럽으로 압축되는 선주 측을 많이 대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선주 측 많이 대리

화물 운송이나 선박 충돌 및 해상 오염, 용선분쟁 등 해상 관련 분쟁엔 으레 선사가 관여되게 마련이며 로펌업계에선 선주 측 일을 얼마나 많이 맡느냐로 그 로펌의 해상사건 경쟁력을 따지기도 한다.

이춘원 변호사는 “국내 주요 선사 대부분을 포함해 약 80개의 국내외 선사 또는 이들이 가입한 P&I 클럽에 자문하고 있다”며, “최근엔 특히 용선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와 관련된

분쟁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하루 용선료만 몇 만 달러에 이르는 용선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국내외 선사들 사이에 관련 분쟁이 체인 물리듯 이어지고 있다.

분쟁금액도 사건에 따라 수백억~수천억원에 이른다. 선사들은 대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해 런던에서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영국법은 원칙적으로 상계(相計)를 허용하지 않아 분쟁 건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해상 변호사들이 해운불황 속에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런던에서 중재로 분쟁해결

이 변호사는 “작년 여름만 해도 해운 경기가 좋았다”며, “그때 선사들이 배를 빌리는 등 과감하게 사업을 벌였으나, 시장이 갑자기 악화되며 관련 분쟁이 폭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현대상선 측을 맡아 2006년 중동에서 일어난 현대포춘호 화재폭발사건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이 변호사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현덕규 변호사는 또 해상 사건의 속성을 들어가며, 지평지성 해상·보험팀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해상 사건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로펌에서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며, “지평지성의 해상·보험팀은 이런 점에서도 해상 사건 처리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해상사건은 규모가 크더라도 대형 로펌에서 경험 많은 파트너 변호사가 여러 명의 어소시엇



강성 변호사



현덕규 변호사



신진호 변호사

(associate) 변호사를 동원해 일하기엔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고, 그렇다고 변호사가 몇 안 되는 부티크 펌은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박금융이나 회사법 관련 업무 등의 수요가 있을 때 같은 로펌 내에서 지원받는데 여의치 않아 충분한 서비스에 한계에 있다는 지적이다.

현 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티크 펌의 단점도 보완해 그야말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지평지성 해상·보험팀의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대리

그는 광장에 있을 때인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는 크레인과 충돌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에서 예인선단 운역사인 삼성중공업을 대리해 활약했으며, 국내 굴지의 해운사가 PDP TV 부품을 일본에서 유럽으로 운송 중 화재가 나 PDP TV 부품이 손상된 사건에서 해운사에 자문하고 있다.

또 리비아에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의 운송과 관련, 태풍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한 제작사 측을 대리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사우스햄튼을 거쳐 영국 로펌인 Richard Butler 런던사무소와 미국의 Burke & Parsons 뉴욕사무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선박충돌 등 해상 분쟁엔 으레 선사 관여 선주측 대리 정도로 해상사건 경쟁력 따져”

이들 외에 지평지성의 해상·보험팀엔 홍성준, 신진호, 이승훈 변호사와 송유진 영국변호사, 최윤희 미국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를 역임한 중견변호사로, 해운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소송 등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신진호 변호사와 송유진 영국변호사는 이춘원 변호사와 세경에서 함께 근무하며 보조를 맡았던 전문변호사들로, 이 변호사를 도와 맹활약하고 있다.

지평지성의 해상·보험팀은 ▲선박침몰, 화재 등 해상사고의 조사 및 소송 ▲유류오염사고의 조사, 자문 및 소송 ▲선하증권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Cargo Claim 관련 자문, 중재, 소송 ▲용선계약 분쟁 관련 자문, 중재, 소송 ▲선박건조 및 매매계약 관련 자문, 중재, 소송 ▲항공사고의 처리 ▲항공운송장 관련 자문 및 소송 ▲해상운송 및 국제무역거래 관련 자문 및 소송 ▲해상보험 및 일반장기보험 관련 자문 및 소송 ▲보험약관 관련 자문 및 소송 등을 주요 업무로 소개하고 있다. **LT**

글 김진원 기자 | 사진 지정훈 기자



이춘원 변호사



최윤희 변호사



송유진 변호사